1. 일반 정보

유형	■ 모의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 · 체육)계열 / (Ⅰ)문항

2. 2027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출제 근거 - 자료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김동환	교학사	2019	340	제시문 [다]	×

교과서 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성찰과 표현』	글쓰기교과 교재편찬위원회	경희대 출판문화원	2019	134-135	제시문 [가]	○
『비평 이론의 모든 것』	로이스 타이슨	앨피	2012	298-299	제시문 [나]	○

3. 2027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항 해설

본 논술고사에서는 경희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의 정형적 패턴을 다소 변형하여 [논제 I]을 출제하였다. [논제 Ⅰ]은 제시문 [가]와 [나] 각각의 관점을 파악하고, 두 관점 가운데 한 관점에 근거하여 [다]를 해석하는 문제로서,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한 뒤, 자신이 선택한 관점에 따라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각 제시문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성찰과 표현』	글쓰기교과 교재편찬위원회	경희대 출판문화원	2019	134-135	제시문 [가]	○
『비평 이론의 모든 것』	로이스 타이슨	앨피	2012	298-299	제시문 [나]	○
『국어』	김동환	교학사	2019	340	제시문 [다]	×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글쓰기교과 교재편찬위원회가 집필한 『성찰과 표현』에서 발췌한 것으로서, 외재적 관점에서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는 글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마티스와 피카소가 보여주는 예술에 관한 생각의 차이와 작품 경향의 차이를 그들의 출신 배경과 성장 과정, 작업 스타일 등을 통해 형성된 기질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제시문 [나]는 미국의 비평이론가 로이스 타이슨의 『비평 이론의 모든 것』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문학작품이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자율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저자의 의도나 독자의 반응보다는 텍스트 자체의 언어와 형식 요소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는 이육사의 시 「절정」이다. 이 시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1940년에 발표되었으며, 「광야」, 「청포도」와 함께 이육사의 대표적인 저항시로 평가된다. 외재적 관점인 [가]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해석한다면 항일 독립운동가라는 이육사의 생애사, 일제 식민지라는 역사적 현실 등이 강조될 수 있다. 이 경우 이 시는 '매운 계절'의 채찍에 쫓겨 칼날 위에 선 극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전반부와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극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후반부로 구분하여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내재적 관점인 [나]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해석하면 시적 화자가 처한 절박한 현실을 '매운 계절, 채찍, 북방,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 등의 비유적, 상징적 시어로 표현한 점, 그 현실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처럼 역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시적 성취를 확보한 점 등이 강조될 수 있다. 이러한 [나]의 관점에서 보면 「절정」은 상징적인 시어와 절제된 형식, 부정적 현실을 부각시킨 선명한 이미지, 한계 상황을 미적으로 초극하려는 강인한 의지 등을 고루 갖추고 있는 빼어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논제 Ⅰ]은 상이한 관점을 지닌 두 개의 지문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여 문학작품을 실제로 분석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두 지문에 나타난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주어진 작품 분석에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4. 2027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논제 Ⅰ	점수 배정 ① 만점: 각 논제 당 100점(두 논제 도합 200점) ② 기본 점수: 60점 -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0점) 채점 기준: 정량평가	100

1) 원고지 사용법
① 띄어쓰기를 포함한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백지이거나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해당 채점위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처리한다.

2) 원고 분량에 대한 감점
① 원고 분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술 내용을 중시)
② 아래의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
③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논제 I> 801 이상 ~ 900자 이하
700자 미만: 감점 40점
700자 이상 ~ 750자 미만: 감점 20점
950자 이상 ~ 1,000자 미만: 감점 20점
1,000자 이상: 감점 40점

3) 원고 분량에 대한 기준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을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한다.
③ 주어진 필기도구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간주한다. (예: 연필로 작성한 부분은 무효처리)

채점 기준: 내용평가

1) <논제 I>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①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10점 가점
② 제시문 [가]와 [나] 가운데 선택한 지문의 관점을 [다]의 해석에 정확하게 적용했으면 10점 가점
③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했으면 20점 가점(창의성 및 표현력 등을 중시)

※ 채점 시 유의사항

(1) 제시문 [가]~[나]는 문학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상이한 관점을 보여주는 글이다.

제시문 [가]는 두 화가의 출신 배경과 성장 과정, 작업 스타일 등을 통해 형성된 기질적 차이를 중심으로 예술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재적 관점에 가깝다. 반면에 제시문 [나]는 문학작품이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자율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저자의 의도나 독자의 반응보다는 텍스트 자체의 언어와 형식 요소를 중시하는 해석 방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내재적 관점에 해당한다. [가]의 관점에서 [다]를 해석할 때는 항일 독립운동가였다는 작가의 생애나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시대 상황 등을 강조할 수 있다. 반면 [나]의 관점에서 [다]를 해석할 때는 작가의 생애나 시대 상황보다 상징적인 시어와 절제된 형식, 선명한 이미지 등의 특징을 강조할 수 있다.

(2) 제시문 [가], [나]의 관점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한 관점이 [다]의 해석에 충실하게 적용되었을 경우 높게 평가한다.

(3) 각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보다는 얼마나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하였는가를 중시한다.

5. 2027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예시답안

[가]의 관점에서 [다]를 해석하는 경우

문학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외재적 관점은 작가, 시대적 현실, 독자의 반응 등 작품과 함께 작품을 둘러싼 외부 요소를 고려해 텍스트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방법이다. 반면에 내재적 관점은 작품을 하나의 완성된 유기체로 보고 언어, 문체, 구조 등 작품 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제시문 [가]는 두 작가의 출신 배경과 성장 과정, 작업 스타일 등을 통해 형성된 기질적 차이를 중심으로 예술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재적 관점에 가깝다. 반면에 제시문 [나]는 문학작품이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자율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저자의 의도나 독자의 반응보다는 텍스트 자체의 언어와 형식 요소를 중시하는 해석 방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내재적 관점에 해당한다.

제시문 [가]의 외재적 관점에서 보면 이육사의 시 「절정」은 창작 당시의 시대 상황과 더불어 독립운동가로서의 생애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이육사는 시인이기 이전에 항일 투사로서 강직한 기질과 올곧은 선비정신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육사의 시는 그가 살아온 삶과 분리되어 평가될 수 없다. 시인은 이 작품에서 혹독한 겨울을 배경으로 식민지의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강렬한 저항 정신을 표출하고 있다. 작품은 극한 상황에 맞서 한 치의 타협 없이 올곧은 삶을 살아간 시인의 '강철같이 단단한 의지와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절정」은 일제강점기의 부정한 현실을 강인한 의지로 초극하려는 작가의 저항 정신이 표출된 작품이며,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배하는 의지적이고 결단적인 어조는 독립운동가로서의 기질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848자)

[나]의 관점에서 [다]를 해석하는 경우

문학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외재적 관점은 작가, 시대적 현실, 독자의 반응 등 작품과 함께 작품을 둘러싼 외부 요소를 고려해 텍스트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방법이다. 반면에 내재적 관점은 작품을 하나의 완성된 유기체로 보고 언어, 문체, 구조 등 작품 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제시문 [가]는 두 작가의 출신 배경과 성장 과정, 작업 스타일 등을 통해 형성된 기질적 차이를 중심으로 예술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재적 관점에 가깝다. 반면에 제시문 [나]는 문학작품이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자율적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저자의 의도나 독자의 반응보다는 텍스트 자체의 언어와 형식 요소를 중시하는 해석 방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내재적 관점에 해당한다.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절정」은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한 시적 화자의 극한적인 상황과 이를 초극하려는 강인한 의지를 4연 8행의 간결한 형식으로 응축하고 있는 시이다. 1연과 2연에서 활용된 '매운 계절, 채찍, 북방, 고원, 서릿발 칼날' 등은 시적 화자가 처한 절박한 현실을 춥고 매서운 겨울 날씨에 빗대어 점층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는 상징적 시어들이다. 3연의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라는 표현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화자의 고통스러운 한계 상황을 절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연의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은 '강철 무지개'를 통해 절망적 현실을 심미적으로 극복하려는 시적 화자의 강렬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절정」은 상징적 시어와 절제된 형식, 매서운 현실을 부각시키는 선명한 이미지, 한계 상황을 미적으로 초극하려는 강인한 의지 등을 고루 갖추고 있는 빼어난 작품이다.(889자)

1. 일반 정보

유형	■ 모의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 · 체육)계열 / (Ⅱ)문항

2. 2027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출제 근거 - 자료출처

교과서 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빛과 실』	한강	문학과지성사	2025	19-22	제시문 [라]	○
『톨스토이 단편선』	레프 톨스토이	올리버	2024	232-233, 236-237	제시문 [마]	○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정약용	창비	2010	39-42, 118-121	제시문 [바]	○
『비슷한 것은 가짜다』	정민	태학사	2000	122-124	제시문 [사]	○

3. 2027학년도 모의논술고사 문항 해설

본 논술고사에서는 경희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의 정형적 패턴에 따른 [논제 Ⅱ]를 출제하였다. 시대와 장소, 개인과 집단에 따라 시간에 대한 의식이 달리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과거와 현재의 가치와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텍스트를 선별하였다. 각 제시문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빛과 실』	한강	문학과 지성사	2025	19-22	제시문 [라]	○
『톨스토이 단편선』	레프 톨스토이	올리버	2024	232-233, 236-237	제시문 [마]	○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정약용	창비	2010	39-42, 118-121	제시문 [바]	○
『비슷한 것은 가짜다』	정민	태학사	2000	122-124	제시문 [사]	○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라]는 소설가 한강의 산문집 『빛과 실』에서 발췌하였다. [라]는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의 창작 배경을 설명하면서 '현재를 돕는 과거'와 '산 자를 구하는 망자'의 이야기를 통해 1980년 5월의 광주가 2014년 장편소설 출간 당시에 '참혹과 존엄' 사이의 인간 현실로 연결되는 '사랑과 고통의 증거'임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세 가지 질문」에서 발췌하였다. [마]는 왕과 은자의 우화를 통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은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며, 그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유일한 이유임을 강조한다.

제시문 [바]는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서 발췌하였다. 이 글에서 저자는 청년들이 외국의 경박한 글들을 모방하거나 성현의 말씀을 비난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참다운 공부를 위해서는 옛 성현이나 선배들의 글을 꼼꼼히 읽고 그것을 학문의 근본으로 삼아야 공부가 넉넉해지고 백성들의 삶도 두터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사]는 정민 교수의 『비슷한 것은 가짜다』에서 발췌하였다. 이 글에서 저자는 옛날과 지금을 대조하면서 '지금 여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옛날도 옛날 당시에는 지금이었으며 미래의 시점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의 옛날'이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과거와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에 충실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논제 Ⅱ]는 그동안의 정형적 패턴에 따라 네 개의 지문을 제시하고, 입장이 같은 두 집단으로 분류한 후 한 입장을 선택하여 그 입장을 요약하고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다양한 제시문을 동일한 시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한 입장을 정하여 다른 입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출제하였다.

4. 2027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논제II	점수 배정 ① 만점: 각 논제 당 100점(두 논제 도합 200점) ② 기본 점수: 60점 -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③ 기준 점수: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0점) 채점 기준: 정량평가 1) 원고지 사용법 ① 띄어쓰기를 포함한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100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백지이거나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해당 채점위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처리한다.

2) 원고 분량에 대한 감점
① 원고 분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술 내용을 중시)
② 아래의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
③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논제 II> 1,001 이상 ~ 1,100자 이하
900자 미만: 감점 40점
900자 이상 ~ 950자 미만: 감점 20점
1,150자 이상 ~ 1,200자 미만: 감점 20점
1,200자 이상: 감점 40점

3) 원고 분량에 대한 기준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을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한다.
③ 주어진 필기도구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간주한다. (예: 연필로 작성한 부분은 무효처리)

채점 기준: 내용평가

2) <논제 II>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① 제시문을 현재에 영향을 끼치는 과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라]와 [바], '지금 여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마]와 [사]로 분류하였으면 10점 가점
② 두 입장을 각각 제대로 요약하였으면 10점 가점
③ 특정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가진 제시문들을 각각 제대로 비판하면 10점씩 가점 (한 제시문 비판에 10점 가점)

※ 채점 시 유의사항

(1) 제시문 [라]~[사]는 현재에 영향을 끼치는 과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라], [바]와 '지금 여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마], [사]로 나뉜다. 제시문 [라]는 '현재를 돕는 과거'와 '산 자를 구하는 망자'의 이야기를 통해 1980년 5월의 광주가 2014년 장편소설 출간 당시에 '참혹과 존엄' 사이의 인간 현실로 연결되는 '사랑과 고통의 증거'임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왕과 은자의

	우화를 통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은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임을 강조한다. 제시문 [바]는 청년들이 외국의 경박한 글들을 모방하거나 성현의 말씀을 비난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참다운 공부를 위해서는 옛 성현이나 선배들의 글을 꼼꼼히 읽고 그것을 학문의 근본으로 삼아야 공부가 넉넉해지고 백성들의 삶도 두터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사]는 옛날과 지금을 대조하면서 '지금 여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제시문 [라], [바]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 [사]의 요지와 한계를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또는 제시문 [마], [사]의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 [바]의 요지와 한계를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높게 평가한다. (3) 각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보다는 얼마나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하였는가를 중시한다.	

5. 2027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예시답안

[라], [바]의 입장에서 [마], [사]를 비판하는 경우

제시문 [라]~[사]는 과거와 현재, 옛날과 지금의 중요성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가치와 의미를 성찰함으로써 시간 의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글이다. [라], [바]는 과거와 현재의 연결 속에서 현재에 영향을 끼치는 과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라]는『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의 창작 배경을 설명하면서 '현재를 돕는 과거'와 '산 자를 구하는 망자'의 이야기를 통해 1980년 5월의 광주가 2014년 장편소설 출간 당시에 '참혹과 존엄' 사이의 인간 현실로 연결되는 '사랑과 고통의 증거'임을 설명하고 있다. [바]는 청년들이 외국의 경박한 글들을 모방하거나 성현의 말씀을 비난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참다운 공부를 위해서는 공자와 맹자의 경전을 꼼꼼히 읽어 학문의 근본으로 삼아야 비로소 학문이 넉넉해지고 백성들의 삶이 두터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마], [사]는 왕의 우화와 옛날과의 비교를 통해 '지금 여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마]는 왕과 은자의 우화를 통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란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유일한 이유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라], [바]의 입장에서 [마]처럼 그때그때 중요한 사람과 일의 우선순위를 달리하면서 즉흥적으로 '지금 여기'만 강조하는 태도는 선행을 베푸는 사람의 속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과거와의 연결성을 배제하고 오늘만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는 옛날과 지금을 대조하면서 '지금 여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옛날도 옛날 당시에는 지금이었으며 미래의 시점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의 옛날'이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과거와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에 충실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라], [바]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통해 '지금 여기만'을 중시하는 [사]의 관점은 과거와 현재의 연결을 차단하고 지금의 즐거움만을 강조함으로써 과거를 박제화하고 현재의 만족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1082자)

[마], [사]의 입장에서 [라], [바]를 비판하는 경우

제시문 [라]~[사]는 과거와 현재, 옛날과 지금의 중요성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가치와 의미를 성찰함으로써 시간 의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글이다. 그중 [마], [사]는 역사적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지금 여기'의 현재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마]는 왕과 은자의 우화를 통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임을 강조하면서 인간 출생의 유일한 이유도 거기에 있음을 설명한다. [사]는 옛날과 지금을 대조하면서 옛날도 옛날 당시에는 지금이었으며 지금의 현실도 미래에는 옛날이 될 것이므로 '과거와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충실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입장임을 강조한다.

반면 [라], [바]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면서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과거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라]는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의 창작 배경을 설명하면서 1980년 5월의 광주가 2014년 장편소설 출간 당시에 '참혹과 존엄' 사이의 인간 현실로 연결되는 '사랑과 고통의 증거'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마], [사]의 입장에서 보면 [라]는 34년 전의 과거를 현재화함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더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를 간과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1980년 5월의 광주가 상처받은 과거의 역사로서 현재의 거울일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의 중요성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바]는 청년들이 참다운 공부를 위해 공자와 맹자의 훌륭한 경전을 꼼꼼히 읽으면서 학문의 근본으로 삼아야 비로소 학문이 넉넉해지고 백성들의 삶이 두터워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마], [사]의 입장에서 보면 [바]의 주장처럼 공자와 맹자의 옛날 경전을 통해 학문의 근본을 배우다 보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비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금 여기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고전이라는 과거의 경전에만 매달리다 보면 더욱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을 외면할 수도 있으므로 박제화된 과거를 추수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1056자)